

국무조정실 청년인턴 현장 사례

BEYOND VILLAGE

# 비욘드빌리지 매달 돌아올 이유

국무조정실 청년인턴

현장 사례 발표

김도경 · (주)헤안 대표



# 무엇이 사람을 다시 오게 할까요?

## 01

### 사람과 동네

김도경·혜안의 시작  
규암·123사비공예마을

## 02

### 활동과 머무름

패들·라이딩·새활용  
지도·카페·숙박의 연결

## 03

### 기록과 다음 만남

목원대 학생·대만 청년의 기록  
청년·생활인구 포럼

핵심 30분 · 전체 상세 약 50분 · 목원대·대만 청년 작품과 생활인구 포럼 요약 영상을 함께 봅니다.

# 부여에 온 학생이 동네에서 일을 만들기까지

부산에서 태어나,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
전통조경학과 2011학번으로 부여에 왔습니다.  
2015년 혜안을 창업하고,  
지역의 자원을 여행과 만남으로 잇고 있습니다.



김도경 · (주)혜안 대표

# 빈집을 고쳐, 여행자를 맞았습니다

2015년 9월, 신동엽 시인 생가 옆에 문을 연 여행자숙소 마당



친구들과 손을 보탠 첫 공간



여행자가 함께 머무는 마당

함께 고친 집에서 여행자를 만나고, 동네를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

# 잘 곳 하나가, 동네를 만나는 입구가 됐습니다

관계적 장소 Massey · 1991 ↗

장소의 의미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 
밖으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.

잠자리 낮선 동네에 하루 머물기

안내자 가게와 이웃을 소개받기

다음 만남 다시 오면 물어볼 사람 남기기



여행자숙소 마당의 저녁 · 잠자리에서 동네의 관계로

# (주)혜안

국가유산·공예·여행을 기획하고, 청년마을을 운영합니다

---

**2015**

부여에서 법인 설립 ·  
여행자숙소 마당 시작

---

**2018**

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---

**2019**

사회적기업 인증 ·  
창의혁신형

---

**2025**

행정안전부 청년마을  
만들기 · 벌룬빌리지

---

**2026**

비욘드빌리지 · 반복하는  
활동과 상시 거점 운영

# 123사비공예마을

## 만드는 사람과 작품을 만나는 규암의 골목

공방과 창작센터, 레지던스와 아트큐브.  
오래된 동네에 공예가의 일상이 이어집니다.

'123'은 백제의 사비 도읍 123년에서 온 이름입니다.



2026.06 「제철이 머무는 자리」

# 규암에 공예마을이 만들어지기까지

빈 점포와 가옥을 창작·거주·판매의 거점으로 연결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01 · 2017년 선정</div> <div>지역의 성장동력으로<br/>공예를 선택</div> <div>충남도 제3기 균형발전사업<br/>「123사비 청년공예인<br/>창작클러스터 구축」 추진</div> | <div>02 · 거점 조성</div> <div>작업과 생활을<br/>규암 안에 연결</div> <div>창작센터·레지던스·아트큐브 조성<br/>빈 점포·가옥을 활용한 공방 창업<br/>청년공예인의 생산·판매 기반 마련</div> | <div>03 · 2023년 운영 기반</div> <div>시설을 짓는 일에서<br/>활동을 이어가는 일로</div> <div>창작센터·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<br/>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 제정<br/>교육·전시·상품 개발·유통 지원</div> |
| <div>충청남도</div> <div>균형발전 계획·재정 지원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→ 부여군</div> <div>시설 조성·운영·지원 제도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→ 공예가·대학·민간</div> <div>창작·교류·체험·판로 연결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혜안은 팝업·전시·페스타를 통해 작품과 방문객이 만나는 접점을 기획합니다.

# 공예를 만나는 다섯 PLAY

## SHOP

고르다



작품을 고르고  
공예가를 만나다.

## TABLE

쓰다



먹고 마시며  
함께 이야기하다.

## PICNIC

머물다



강변에 머물며  
쉬어 가다.

## GROUND

만들다



손으로 만들며  
과정을 경험하다.

## VILLAGE

걷다



골목을 걸으며  
장소를 연결하다.

작품을 고르고, 함께 쓰고, 동네를 걸으며 공예를 만납니다.

# 청년들과 함께 펼친 2025 벌룬빌리지

열기구를 함께 준비하고,  
하늘을 보고, 동네에서 지낸 시간.



함께 날아보기



함께 열기구 퍼기



모험 뒤에 남은 사람들

# 즐거운 방문 다음에, 계속 살아갈 조건

17<sub>명</sub> 2<sub>명</sub>

지역살이 참여

지역 정착

2025년 지역살이 참여 만족도 4.5 / 5

함께 지내는 경험에 더해,  
살 집과 일, 관계가 이어질 조건을 고민했습니다.



2025 벌룬빌리지

# 날씨로 멈춘 방문

10<sub>명</sub> → 8<sub>명</sub>

2025년 3기 신청

기상 영향 취소

80%

한 체험에 기대면,  
날씨가 방문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.



2025년 3기

날씨가 바뀌어도, 마을에서 함께할 일이 남도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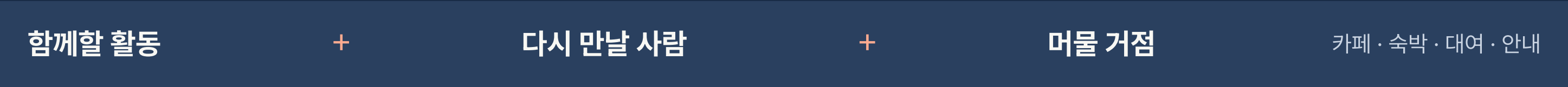
# 다시 만나며 배우고, 함께할 일이 쌓입니다

실천공동체 Wenger-Trayner · 2015 7 관심사가 같고, 정기적으로 만나며,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관계



패들 크루 · 함께 노 젓는 방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

- 01 같은 관심으로 모이고  
패들·라이딩, 고쳐 쓰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.
- 02 서로 배우며 해보고  
노 젓는 방법, 수선하는 요령을 나눕니다.
- 03 다음에 함께할 일을 남깁니다  
크루와 워크숍이 다음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.



# 동네에서 작게, 바깥과는 열려 있게

**SLOC · 사회혁신 디자인** Manzini · 2010 7

작고 지역적인 활동이 바깥의 사람·지식과 연결될 때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



실제 패들 크루 기록

## Beyond Odyssey

패들·라이딩 크루  
같은 취미로 다시 만날 약속



폐우산 재활용 기록

## Beyond LAB

수선·재활용 워크숍  
함께 배우고 손을 보태는 일



완공 후 라운지

## Beyond Basecamp

카페·숙박·안내·자전거  
활동 전후 머물 수 있는 거점

**S** 작게 시작하고

**L** 동네 자원을 쓰고

**O** 누구에게나 열고

**C** 경험과 사람을 잇기

# 물 위에서, 같은 크루가 됩니다

처음 온 사람도 함께 배우고, 노를 젓고, 다음 만남을 약속합니다.



함께 움직이는 시간



처음이어도 같이 배우기



함께 옮기고 준비하기

# 함께 달리고, 동네에 들립니다

금강 자전거길을 달리고,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해 돌아옵니다.



금강 자전거길



출발과 복귀의 거점



달리는 길 위의 만남

# 버려질 우산으로, 다시 쓸 물건을 만듭니다

바느질을 배우고, 손을 보태고, 쓰던 물건의 다음 쓸모를 찾습니다.



함께 만들기



직접 손으로 배우기



물건의 다음 쓸모 찾기

# 다시 머물 수 있는 거점



카페 DECK · 완공 후



게스트하우스 객실 · 2026.10.02



바이크 스테이션 · 완공 후

# 124<sub>m<sup>2</sup></sub>

카페 DECK / 바이크 스테이션 / 게스트하우스 4실 / 공동주방

카페 좌석은 최대 20석. 30명 방문은 별도 발표 장소와 동선을 고려합니다.

# 당일치기와 생활 사이에, 하룻밤



베이스캠프 객실 · 2026.10.02

## 베이스캠프 4실

크루·자전거 여행자·머칠 머물 방문자의 숙박

## Beyond House 3실

일주일~한 달 체류를 문의할 수 있는 별도 거점

## 재방문 청년

이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의 재방문 숙박 지원

# 규암에서, 부여까지

공방부터 강변, 머물 곳까지.  
가고 싶은 장소를 직접 찾고,  
나만의 동네 지도를 만듭니다.

**찾기** 검색과 분류로 오늘 갈 곳 고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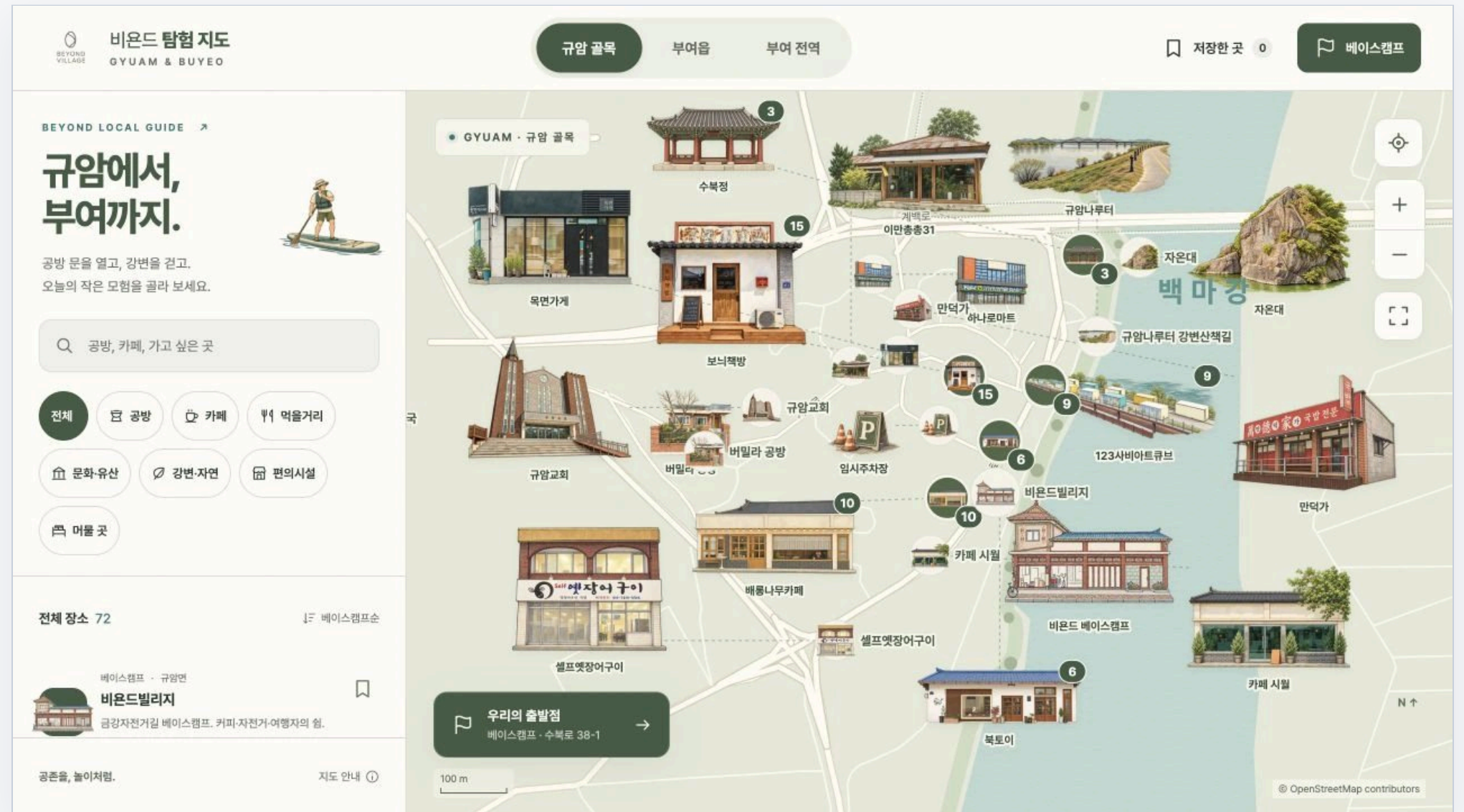
**저장** 마음에 드는 장소를 모아두기

**탐험** 규암 골목에서 부여 전역으로

탐험지도 열기



beyondvillage.kr/explore-map



공방 문을 열고, 강변을 걷고. 오늘의 작은 모험을 골라보세요.

# 다음에 올 이유를, 하나씩 만듭니다

**관계인구** 일본 국토교통성 · 2021 7월 기준  
이사 여부와 별개로,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사람들

## 01

### 찾아오기

지도·활동 안내  
혼자 와도 알 수 있게

## 02

### 함께하기

크루·새활용  
같이할 사람을 만나기

## 03

### 머물기

카페·숙박  
활동 뒤 시간을 보내기

## 04

### 다시 오기

다음 회차·재숙박  
관계를 반복하기

### 찾아와 보태기

다시 참여하기 · 주민·상점과 함께 일하기

### 멀리서도 이어가기

지역 소식 나누기 · 기획과 기록에 함께하기

# 프로그램이 끝나도, 다시 찾아옵니다

12<sub>명</sub>

프로그램 재참여

2026년 10월까지

다음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,  
마을과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.

22<sub>명</sub>

프로그램 외 재방문 청년 누적



# 방문 횟수와 함께, 관계의 깊이를 묻습니다

**공동체감** McMillan & Chavis · 1986 <sup>7</sup> “나도 이곳의 일부다”라는 느낌은 어떤 경험에서 생길까요?

01 · 소속감

**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요?**

다시 만날 사람과 동네의 정보를 얻는 경험

02 · 영향력

**내 의견도 이곳에 보탬이 되나요?**

주민·방문자의 제안이 다음 활동에 반영되는 경험

03 · 서로의 필요

**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있나요?**

머물 곳·손님·일거리·협업의 기회를 주고받기

04 · 함께한 기억

**같이 떠올릴 장면이 생겼나요?**

노 젓고, 만들고, 이야기 나누며 쌓인 기억

**다음 기록** 재방문 · 체류일수 · 이용 가게 · 유급 협업이 실제로 이어졌는지

# 목원대학교 2박 3일 부여살기

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 
지역연계 전공실습캠프

16명

참여 학생

7조

서로 다른 기획

14편

영상 결과물



비욘드빌리지에서 시작한 2박 3일의 여정

강연·새활용



라이딩·현장 취재



상영·기획 의도 공유

# 2박 3일의 경험과 제작 과정

10.16 · 금요일

듣고, 손으로  
직접 만들어 보기



비욘드빌리지 강연·오리엔테이션  
원단을 고르고 바느질한 새활용 파우치

10.17 · 토요일

동네를 경험하고  
현장에서 질문하기



강변 라이딩·조별 지역 탐방  
고아웃캠프 체험·설문·브랜드 인터뷰

10.18 · 일요일

작품을 함께 보고  
기획 의도 나누기

14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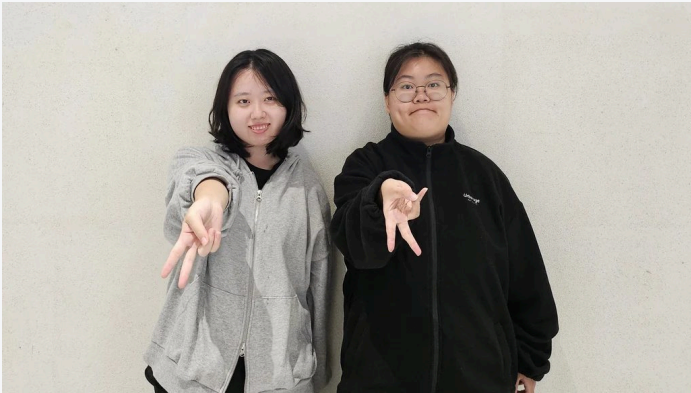
자유주제 7편  
지속가능성 7편

촬영본을 다듬고 편집·자막 마무리  
영상 상영·조별 발표·교수 총평

# 일곱 조가 관찰한 부여



1조  
주민이 추천하는 부여



2조  
역사도시 밖의 일상



3조  
동그라미에서 자전거로



4조  
게임처럼 돌아본 부여



5조  
플래카드로 시작한 대화



6조  
친구들과 남긴 여행



7조  
춤과 인터뷰로 담은 부여

# 학생들이 기록한 부여

## 미리보기

사람에게 말을 거는 플래카드,  
자전거 바퀴로 이어지는 동그라미.  
경험이 각자의 영상이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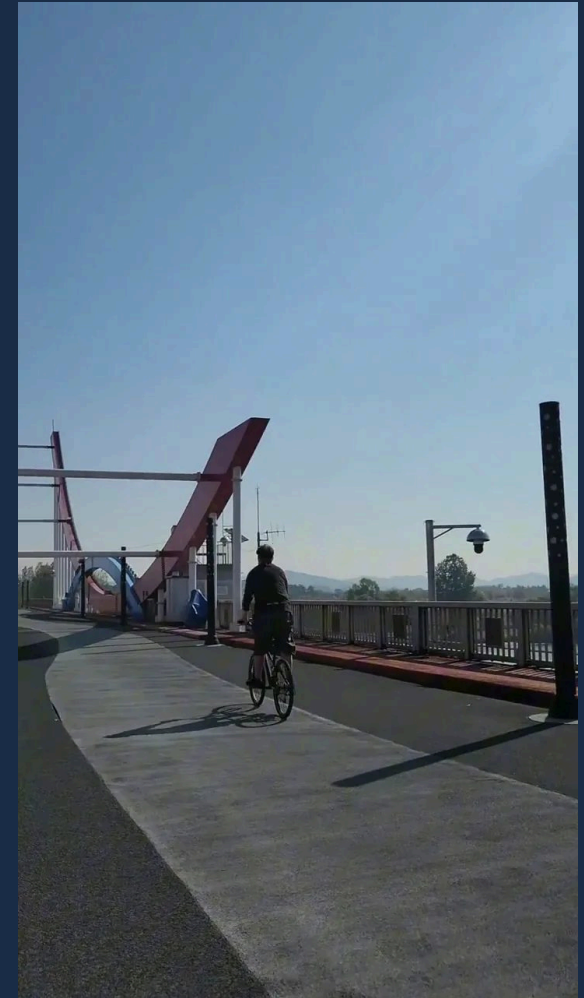


전체 작품 14편과  
여정 기록 보기 >



## 우리들의 3일

플래카드를 들고 만난 사람들 · 42초



## 원

동그라미에서 자전거 바퀴로 · 48초

# 체류의 경험을, 다음 만남의 자원으로

“내가 재밌어야  
다른 분들도 재미있어요.”

김은희 교수 · 10월18일 성과공유회

직접 즐기고 경험한 학생들이  
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.

**행사 포트폴리오** Ziakas · 2022 ↗

각 행사의 경험·사람·결과물을 연결해  
다음 활동의 자원으로 이어갑니다.

## 지역을 새롭게 보기

역사도시로 알던 부여에서  
라이딩·공예·캠핑의 경험을 발견

## 사람에게 말을 걸기

플래카드·설문·인터뷰를 통해  
주민과 방문객, 브랜드 관계자를 만나기

## 다음 만남을 열어두기

못 가본 장소를 다시 찾고 싶다는 소감  
다시 머물 수 있는 거점 안내

2박 3일의 경험



영상과 공개 기록



다음 방문의 계기

2026.08.18-24 · PRE LIVING LAB

# 부여를 만나고, 자기 시선으로 기록한 일주일

공예를 배우고,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,  
동네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.

7

일의 체류

14

인의 시선

28

편의 작품



공예와 생활을 경험하고



자기 시선으로 관찰하고



각자의 작품으로 나누기

# 대만 청년백억 해외 꿈 실현 기금

青年百億海外圓夢基金計畫 · Taiwan Global Pathfinders Initiative

2025<sub>-2028</sub>

4년 사업 기간

100<sub>억 NTD</sub>

전체 계획 총예산

15<sub>-30세</sub>

사업 전체 대상

**취지**      국제 교류·현장 배움·창의적 행동으로 청년의 시야와 역량을 넓히기

**방법**      청년 자율제안형 ‘築夢工場組’ + 기관이 만든 해외 기회에 지원하는 ‘海外翱翔組’

# 부여의 인연이, 대만 청년의 방문으로

## 인연

### 다시 찾고 싶은 부여

부여를 경험한 대만 파트너의 인연이  
청년들과의 재방문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.

## 준비

### 국경을 넘어 함께 짠 여정

지역 협의와 한·대만 운영회의를 거쳐  
일정·만날 사람·창작 과제를 조율했습니다.

## 현장

### 사람과 활동을 연결하는 거점

8월 18일 베이스캠프에서 시작해  
공예·인터뷰·작품 제작·성과공유회로 이어졌습니다.



부여에서 지역의 사람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

대만 운영진 × 스테이션알 × 비욘드빌리지 × 부여의 주민·공방

# 7일의 경험이, 질문과 작품이 되었습니다

---

**8/18**

**만나기**

베이스캠프 OT

지역과 창작 과제 소개

---

**8/19-22**

**관찰하기**

공예·박물관·상점

주민 인터뷰·해변 SUP

---

**8/23**

**질문하기**

난터우-부여

청년 라운드테이블

---

**8/24**

**나누기**

성과공유회

14인 작품 발표

---

관찰 → 인터뷰 → 주제 만들기 → 영상 창작 → 공개 기록

# 볼거리 뒤의 사람을 만났습니다

부여 청년들과 저녁을 먹고,  
가게 주인을 만나 일과 삶을 물었습니다.  
부여로타리클럽과의 벽화 봉사도  
함께 지역을 경험하는 접점이 됐습니다.

**약한 연결** Granovetter · 1973 ㄱ

가끔 만나는 사이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 
새로운 정보·기회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.

대만 청년

대화 · 인터뷰 · 협업

부여의 사람들



2026.08.19 · 시골통닭에서의 첫 네트워킹

# 28편의 영상, 세 가지 지역의 질문

## 14인 28편

성과공유회 발표자와 제출 작품



### 체류

저녁 활동과 흠어진 관광·상점 정보를 어떻게 잇나

### 이동

도착 후 목적지까지의 마지막 이동을 어떻게 돕나

### 주민 교류

주민이 안내하고 함께하는 하루·장기 체류를 어떻게 만드나

# 풍경 뒤의 사람을 보다

첫 방문의 인상에서,  
지역을 소개하고 이끄는 사람들의  
이야기로 시선을 넓혔습니다.

원본 00:09-00:31 · 22초 발췌

[작품과 발표 기록 전체 보기](#)



**우이팅** 吳羿霆

한국·부여 첫 방문

풍경과 소리에서 사람의 이야기로



백제의 고도, 부여

# 도시에 색을 채우는 사람들

풍경이 도시의 윤곽을 만들고,  
계획된 만남과 우연한 만남이  
그곳의 색을 채운다는 관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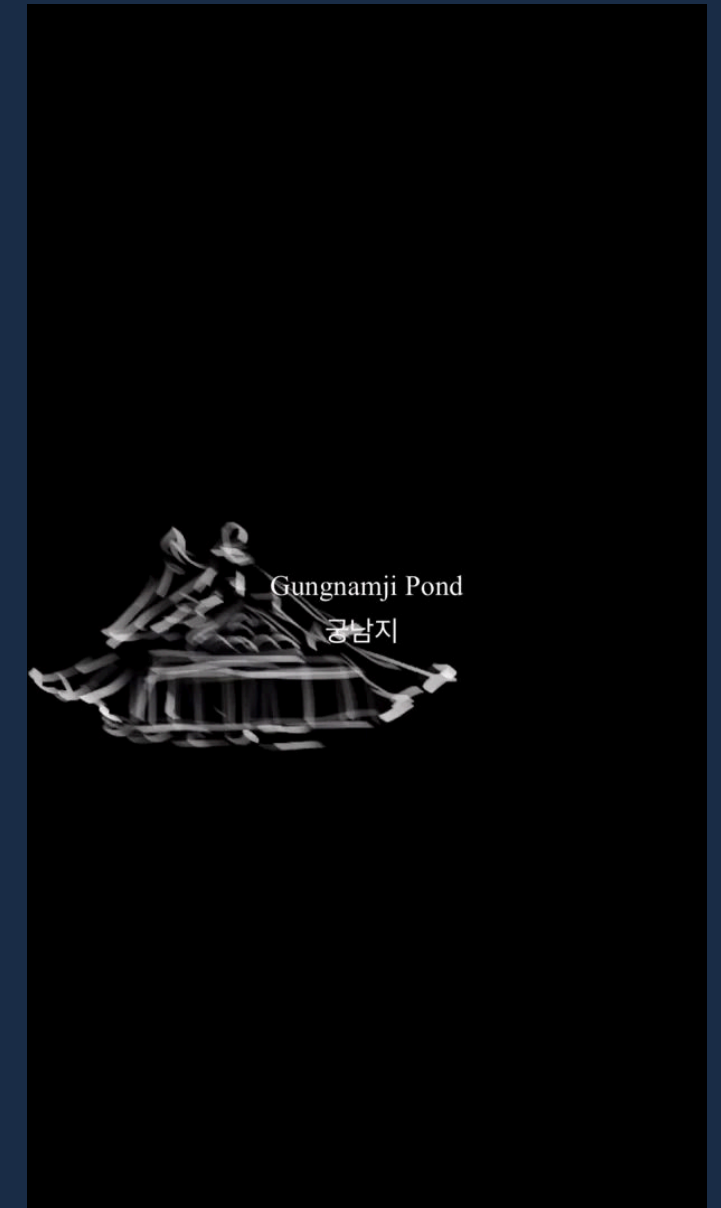
원본 00:15-00:37 · 22초 발췌

[작품과 발표 기록 전체 보기](#)



천연전 陳彥蓁

대만대학교 회계학과  
그림과 영상으로 기록한 부여



# 대만 청년들이 발견한 문제와 제안

2026.08.23 라운드테이블 · 일주일의 체류 경험에서 나온 세 가지 제안

| 지역의 질문                | 머물며 발견한 불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년들이 제시한 솔루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1<br>하루 더 머물려면?      | 밤에 즐길 거리 부족과 이른 상점 마감<br>흩어진 관광정보·낮은 부여패스 인지도  | 야간 코스 + 숙박·상점 혜택<br>통합 관광안내와 부여패스 홍보     |
| 02<br>도착한 뒤 어떻게 이동할까? | 건기에는 멀고 차로 가기에는 가까운 거리<br>관광지와 생활 거점 사이의 이동 공백 | 터미널·거점 중심의 공유·대여 이동수단<br>다국어 지도·결제·이용 안내 |
| 03<br>주민과 어떻게 만날까?    | 방문 청년과 지역 주민의 점점 부족<br>청년 유출과 고령화라는 공통 고민      | 주민 가이드가 이끄는 1일 코스<br>외국인 한 달 살기와 로컬 협업   |

# 청년이 머무는 도시, 부여의 다음 10년

2026 Buyeo Next 청년 지속가능도시 포럼

2026.09.09 · 부여군 여성문화회관

주최·주관: 부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가치분과

운영 협력: 비욤드빌리지((주)혜안)

강연 · 정착 사례 · 토론 · 포스트잇 의견



2026.09.09 · 실제 현장 사진

# 청년이 살아갈 동네의 다섯 조건



정석 ·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
「청년이 행복한 로컬 만들기」

- 01 **일자리**  
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가
- 02 **살자리**  
계속 살 공간을 구할 수 있는가
- 03 **교통망**  
일터·병원·모임을 오갈 수 있는가
- 04 **관계망**  
묻고 의지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는가
- 05 **생애주기 돌봄**  
독립·양육의 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

# 계속 살아볼 이유는 사람에게서

일할 곳과 잘 곳이 있어 시작한 1년살이.  
친구·모임·매거진·시민뮤지컬을 거치며  
이웃과 함께할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.

함께 쓰는 공간과 활동에도 운영비와 노동이 듭니다.



김한솔 · 부여안다 · 실제 사례발표 기록

# 주거·작업·생업의 서로 다른 문턱



**한승우** 지역 출신 청년·건설업

비어 있지만 무너져 가는 집 → 소유자와 장기 임대를 잇는 역할



**김태현** 주민자치

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경험 → 활동을 지속할 시간과 운영 노동



**고민성** 공예 작가

기숙사 이후 살집 찾기 → 공개된 주거 정보와 작업 조건



**이민구** 청년 농업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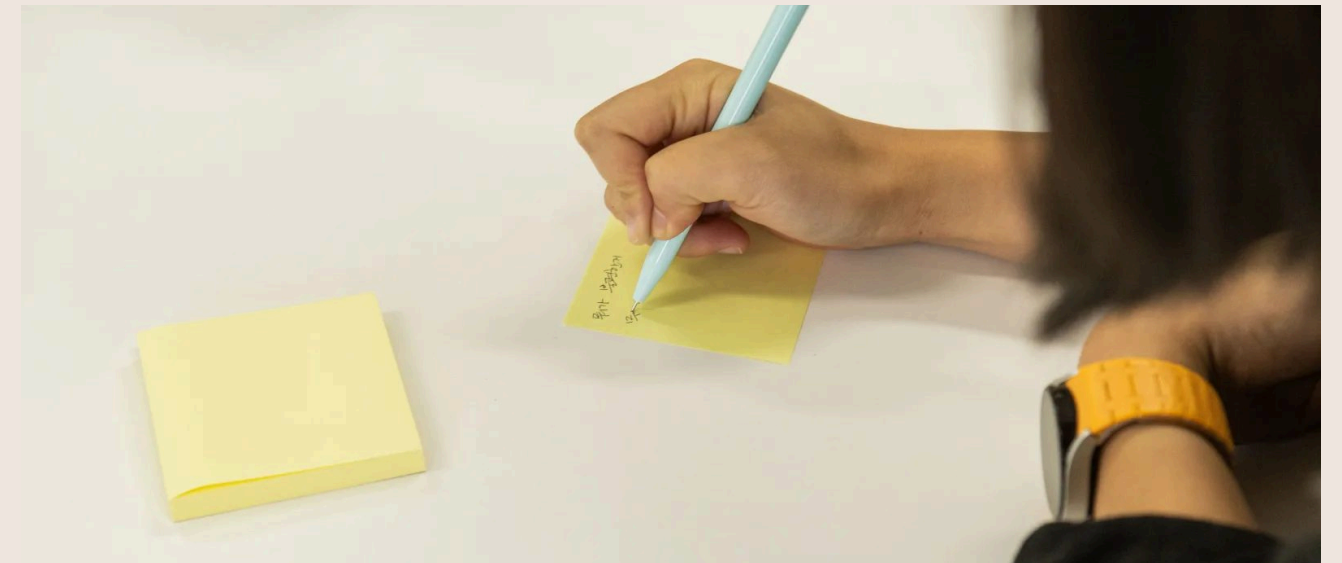
생산·가공·홍보·판매를 홀로 감당 → 업무를 나눌 협업과 감당할 소득, 쉼 시간

# 포스트잇에 남은, 이곳에서 살아갈 조건

포스트잇 · 청소년

떠나지 말라는 말보다,  
남을 수 있는 조건을.

청년 지속가능도시 포럼 · 현장 의견



2026.09.09 · 포럼 의견 작성

부여에서 자란 아이들도 이곳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.  
일자리·살집·문화·교육·교통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남았습니다.

정석 · 서울시립대학교 교수

# 지역에 있는 사람의 생활부터 봅니다

**사람을 보기**    인구 수를 늘리는 경쟁에서, 지역의 인재와 삶의 조건으로

**불편을 듣기**    이미 사는 청년에게 무엇이 불편하고 필요한지 묻기

**생활을 잇기**    일자리·살자리·교통망·관계망·생애주기 돌봄을 함께 살피기



# 생활의 조건을 만드는 다섯 가지 제안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관계를 뒷받침하는 정책</div> <div>일본 국토교통성 · 2021 기</div> | <div>사람</div> <div>안내하고 연결할 운영자</div> | <div>장소</div> <div>살고 만나고 활동할 공간</div> | <div>운영 구조</div> <div>다음에도 이어갈 절차·재원</div> |
| 포럼에서 나온 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체적으로 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함께할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빈집을 살집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유자 협의·수리·임대·입주 중개                    | 군 주거·청년 담당 / 소유자 / 이용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과 활동의 지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획·운영 노동의 비용 반영과 협업                   | 군 일자리·문화·농업 담당 / 지역 운영자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학과 마을의 만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생·공예가·지역 청년의 자율적 만남                  | 대학 / 창작센터 / 청년공간 / 주민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활의 이동·돌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터·병원·모임의 이동과 돌봄 공백 확인                | 교통·보건·돌봄 기관 / 이용자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안에 답하는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·검토기한·결정 이유·후속 조치 기록                | 군 관계부서 / 의회 / 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청년의 생활에서, 부여의 생활인구 정책으로

부여군의회 미래전략농업혁신연구회 주최·주관 · 김도경 간사



2026.10.07 · 부여군 여성문화회관

9월 청년 포럼의 질문을 다음 논의로

## 다시 올 이유와, 계속 살아갈 조건

숙박과 교통      하룻밤 더 머물 수 있는 예약·이동·저녁의 동선

주거와 생활비      청년이 실제 살 집과 감당할 생활비

지역의 일      평일 상권과 일할 기회, 담당자의 연속성

# 부여에 다시 올 이유, 계속 살아갈 조건

생활인구 정책토론회 요약

1분 40초

생활인구 확대 정책토론회

2026. 10. 7.

현장의 이야기

## 밤 8시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

[토론회 기록과 영상 더 보기 ↗](#)

# 지역의 이야기가, 지역의 일이 되도록

지역 술은 그곳의 이름과 자원을 맛보는 경험입니다.  
그 경험이 다시 찾는 관계와 지역의 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.

**지역성**      백마강·옛바위의 이야기와 부여의 쌀을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곳을 기억하는 맛과 브랜드로 잇습니다.

**관계**          한 잔을 통해 동네와 사람을 만나고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시 방문하고 함께할 계기를 만듭니다.

**사회적 가치**      만드는 일·알리는 일·운영하는 일이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지역에 남을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합니다.



인번 막걸리 · 시제품과 브랜드·패키지 개발

2027년 양조·운영 분야 청년 일자리 2명을 목표로 준비합니다.

# 백마강의 이야기를, 한 잔의 맥주로

규암의 이름이 시작된 옛바위.  
사람과 배, 이야기가 오가던 나루의 시간을  
옛바위맥주에 담았습니다.

## 지역의 이름과 풍경

옛바위·규암·백마강을 잇는 브랜드 이야기

## 지역을 기억하는 두 가지 취향

라거와 에일로 만나는 백마강의 이야기

## 브랜드에서 다음 방문으로

음악과 영상으로 부여를 기억하고 다시 찾을 계기를 만듭니다.

BUYEO · YEOTBAWI CRAFT BEER



# 옛바위 맥주

### 백마강을 엿보다

백마강을 바라보는 옛바위는 '규암'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.  
사람과 배, 이야기와 술이 오가던 나루의 시간을 맥주에 담았습니다.



### 라거 LAGER

330ml · ALC 5.0%

단일맥아와 프리미엄 홉으로 빛은  
스페셜 호피 라거.



### 에일 ALE

330ml · ALC 4.8%

밀·살과 오렌지·감귤 겹칠,  
고수씨드를 더한 에일.

부여의 시간을 담아, 한 잔의 맥주로.

냉장보관 0~10℃ ·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

옛바위맥주 · 백마강을 엿보다

# 백마강을 잇봐

옛바위맥주 · 43초



# 비욘드빌리지에 남은 세 가지 질문

- 01 도시 청년의 일주일 지역살이,  
이주를 결심하기에 충분할까요?
- 0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난 뒤,  
무엇으로 활동을 이어갈까요?
- 03 청년 유출이 이어지는 현실에서,  
행정과 민간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?

#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

## 01

### 다시 올 이유를 만들고, 관계인구를 넓힙니다

같은 취미와 사람을 만나러 반복해서 방문하는  
관계인구를 넓힙니다.

프로그램·콘텐츠·머물 거점을 연결해 다음  
방문의 계기를 만듭니다.

## 02

### 공공의 일을 지속할 지원 근거와 사업을 마련합니다

지역 문제를 푸는 활동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 
재정도 필요합니다.

활동을 이어갈 지원 근거와 후속 사업을 함께  
준비합니다.

## 03

###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, 현장의 성과를 함께 만듭니다

운영·참여자 연결·성과 기록을 맡아 행정의  
고민을 실행으로 옮깁니다.

역할과 절차를 간명하게 나누고 작은  
시범사업부터 함께 풀어갑니다.

BEYOND VILLAGE

# 다시 올 이유를 만들고, 지역의 일을 함께 풀겠습니다.

반복해서 만나는 관계인구  
활동을 지탱할 공공의 지원  
실행을 나누는 행정과 민간

[베이스캠프 ㄱ](#)

[대만 청년 작품 ㄱ](#)

[청년 포럼 기록 ㄱ](#)



2025 벌룬빌리지 · 함께한 사람들